"마음 건강하면 당당한 삶"

선지식을 찾아서 첫관

늘어놓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 부귀를 한 몸에 누리는 사람도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그날 벌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힘들다고 하소연하니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틀림없단다.

"사람들 육신의 골절은 3백60골이나 되는데, 3백60 마디마다 근심 걱정이 사무치지 않은 골절이 없을 것이며, 번뇌 망상이 사무치지 않은 골절이 없을 것입니다. 3백60골절 마다 사무쳐 있는 근심과 번뇌망상을 깨끗이 씻어내는 약은 수행정진 밖에 없어요. 자기 수행이 결국은 자신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지요."

정관 스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수행이다. 스님은 평생을 철저한 자기 관리로 살아오셨기에, 또 철저한 자기관리로 인해 무량한 법열을 느껴보았기에 수행을 강조하시는 것이다. 정관 스님은 송화두 외에도 철저한 자기 관리를 위한 스님만의 방편이 하나 더 있다. 매일 불(佛)자를 열 번 쓰는 것이다. 벌써 30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일과다. 그만큼 스님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다.

정관 스님은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또 명예를 한 번 높여보겠다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속된 것이라 여긴다. 어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대로 진실 된 공부자가 되겠다'는 신심으로 시작하여 공부를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단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진실로 자기 것이지, 노력 끝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진실로 수행 정진하여 내면이 항상 밝고 깨어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정관 스님은 스물한 살 때 범어사로 출가하여 동산 스님의 상좌가 되었다. 은사 스님으로부터 받은 '이 뭣고' 화두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하루 9시간 넘게 정진하고 있다. 정관 스님의 정진 수행은 송화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정관 스님은 어린이 포교 조직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대한불교 어린이지도자연합회'를 창설하여 2세 교육과 포교에 열정을 쏟았다. 또 복지재단 '불국토'를 설립하여 개금복지관, 두송복지관, 물운대복지관 등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사업에도 헌신했다. 영주암의 상락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노인 백여 명을 모시고 있다. "우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베풀어야 합니다. 베푸는 공덕이 바로 복을 짓는 것입니다. 작복(作福) 없이 복을 바래서는 안되요. 자기 제도를 위한 공부도 작복이 먼저입니다" 씨는 뿌리지 않고 열매만 따먹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하지 말라는 경책이다. 정관 스님은 중생들이 겪는 고난과 슬픔에 대해 진실로 마음 아파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염불공덕이 사회로 중생에게로 회향되기를 간절히 발원하고 있다.

"요즈음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죽하면 그랬으랴 싶어 연민의 마음 가득합니다, 하지만 자살행위는 생각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 해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요. 마음은 내가 있기 전부터 본래부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살하겠지만 육신은 죽었지만 결코 마음은 죽지 않아요. 마음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끝없는 윤회입니다. 고통의 과보를 받지 않으려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아야지. 자살 한다고 해서 고통이 끝날 것 같지만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야. '나'라는 주인공은 역시 마음이지 다른 법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소득 4만불을 약속하지만 외형적으로 커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란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행복이라 여기지만 결코 물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서, 지금 국민소득 2만불이나 되는데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느냐고 물으신다. 외적인 복지가 충족되었다면 내면세계의 복지도 돌아보아야 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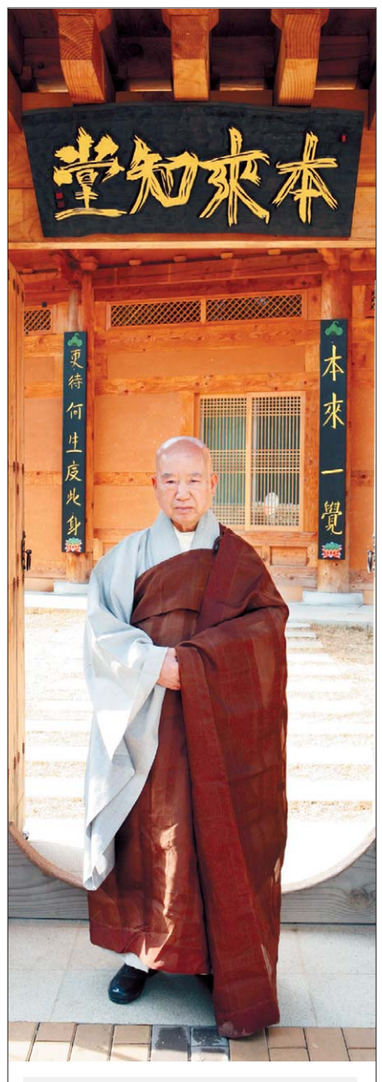
"인생에 실패는 없어요. 설령 실패했다고 해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요즈음 실업자는 많아도 3D업종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없어요.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하여 선진국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직분에 대한 긍지가 있어요. 생각이 선진국이 되어야지 물질적으로 선진국이 된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 아니야. 대한민국의 수많은 엄마들은 자식이 판 · 검사, 의사, 장군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니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구두닦이를 하더라도 직분에 긍지만 있으면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자신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기가 죽어요? 남이 무시하더라도 자신 스스로가 무시하지 않으면 무시당하지 않아요. 불교는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만족 속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맛으로 사는 것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은 과시적인 삶에 불과한 것, 진정성이 없다고 한다. 정관 스님은 "마음이 건강하면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겁날 것이 없다"면서 세세생생 이 말을 전할 것이라 했다.

본래지당을 나서는데 스님의 한 말씀에 코뚜레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야생마도 길들이는데 자기 마음 자기가 왜 잡지 못하는가?"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정관 스님은 1954년 범어사로 출가하여 동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57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와 보살계 수지. 범어사 불교전문강원 수료. 범어사 선원에서 14안거 성만했고 이때 깨달음을 얻었다. 1986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1994년 사단법인 '불국토' 이사장 역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역임. 제18회(2006년)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쌍계사, 범어사 주지 역임. 지금은 영주암에 주석. 저서로는 〈죽음이 없는 선의 길〉 〈인도성지 참배〉 〈하늘같은 자유〉 〈간화선의 길〉 외 다수.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32〉 인간문화재 송암 대화상

철위산간옥초산(鐵圍山間沃焦山) 확탕노탄검수도(鑊湯爐炭劍樹刀) 팔만사천지옥문(八萬四千地獄門) 장비주력금일개(仗秘呪力今日開)

"철위산간의 옥초산과 확탕노탄의 검수도산, 팔만사천 지옥문이 신비의 주력에 의하여 열려진다"는 말이다. 하늘로 날아갈듯한 그 음성, 땅으로 파고드는 그 소리에 진짜 철위산간 속에 있는 옥초산과 확탕노탄 검수도산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송암 스님(1915~)의 그 높고 깨끗한 음성을 들으면 누구도 가슴을 졸이지 않는 사람이 없다. 떠들고 시끄럽던 재장(齋場)이 조용한 호수처럼 가라앉고, 시야를 알아볼 수 없는 안개가 걷혀 맑은 허공이 금방 눈앞에 나타나는 것 같다.

높고 깨끗한 음성 '극락의 문' 열어 주는듯 즐거워

1915년 서울에서 태어나 80평생을 서울에서 보낸 스님이지만 조선 팔도강산을 가보지 아니한 곳이 없고 일본, 미국, 유럽, 동남아 일대 할 것 없이 세계 각국에 큰 재(齋)가 있는 곳이면 빠지지 않고 다니셨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밥 주지, 옷 주지, 가는 곳 마다 차비 주지, 부처님 복이야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방실방실 웃으시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천진동자와 같다.

스님은 1933년 봉원사 강원을 졸업하고 경성상업학교를 나와 박운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여 이원화 남벽허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셨다고 한다.

"옛날이야 녹음테이프가 있습니까, 비디오가 있습니까. 그냥 선생님 입보고 따라 배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1973년 주요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어 1987년 영산재보존회 총재로 추대되니 당장 옥천범음대학을 만들고 후배를 양성, 대통령으로부터 옥관문화훈장을 받으셨다. 그러나 항상 범패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하므로 〈석문의범(釋門儀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직접 전화하거나 사람을 보내 확인하기도 하셨다. 특히 이화여대 체육무용학과, 청주예술대학, 경성무용전문학교 강사로 계실 때는 학생들이 낸 논문을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하자고 하여 두세 번 동참한 일이 있는데, '도량무'가 어째서 '나비춤'인지, '천수바라'의 '바라'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바르게 이해했을 때는 춤을 추고 날아갈 것 같았다고 술회하셨다.

사실 스님은 나이 들어도 동자처럼 항상 깨끗하시고, 복장이 단정하여 불명 그대로 희덕(喜德)이었다. 늘 마음이 기쁘고 덕이 있어 얻은 옷이나 양발이나 내복이 있으면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받은 보시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주자고 하여 삶에 보탬이 되게 하였다. 날마다 재불공을 드려도 피곤함이 없는 것은 환희심에서 살기 때문이라 했다.

"세계 각국의 성현들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 부처님처럼 왕자로 태어난 분이 없고,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으로 보아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뿐 입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저 하느님도 따라올 수 없지요. 하느님이 어떻게 하느님이 된 줄 아나요. 하느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느님이 되었다 하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대범천왕, 제석천왕이 와서 호위하고 받들지 않으셨서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공자님도 내생(來生)은 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세는 알았어도 과거 전생은 몰랐습니다. 하느님의 독생자(獨生子)라는 것도 본인이 깨달아 안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예언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진묵겁전(塵墨劫前)의 일을 아셨으니 성인가운데 성인이고, 왕 가운데 왕입니다."

이렇게 스님은 당신이 외우고 쓰고 하는 소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후배들을 가르쳤으므로 무속의 아류로 생각했던 범패가 국가문화재로까지 지정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의식을 수행하는 품위를 지키고, 계율을 청정히 가져서 남의 복밭이 되고, 귀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세계를 티끌로 만들어 한 세계를 지나 티끌하나 떨어뜨리고, 한 세계를 지나 떨어뜨려 그 티끌이 다하면 그 티끌이 떨어진 장소와 떨어지지 않은 장소까지 모두 합쳐 먹 갈듯이 갈아 먹가루를 만든 뒤에 앞서의 티끌을 하나씩 떨어뜨려 다 없애듯 뒤의 먹가루도 그렇게 하여 다 없어질 때까지 계산하여 먹가루 다 하는 세월 이전에 우리 부처님께서 성도하셨다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하하하."

하시고, 한손으로 이마를 만지시고 긁적 거리던 모습. 아마도 스님은 그 이전의 세계에 돌아가 거기서도 범패를 읊으시며 부처님을 찬탄하고 계실 것이다.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011-743-5167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禪)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